

釜山浦 勝戰 400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엄 討論要旨

日時：1992年 10月 7日(水) 13：00～19：00

場所：文化會館 國際會議場

主催：釜山直轄市

主管：慶星大學校 附設 郷土文化研究所

慶星大學校 史學會

大主題：釜山の 壬辰抗爭

□ 사회자：이 원 균 (부산수산대 교수)

□ 주제발표자 및 약정토론자

- 제1주제：고대~고려말의 왜구에 대한 일고찰
 - 발 표 자：정 중 환 (전 동아대 교수)
 - 약정토론자：김 광 철 (동아대 교수)

- 제2주제：부산의 임진항쟁
 - 발 표 자：김 석 희 (부산대 교수)
 - 약정토론자：정 재 훈 (동아대 교수)

- 제3주제：임진왜란 후의 부산과 일본
 - 발 표 자：하 우 봉 (전북대 교수)
 - 약정토론자：김 동 철 (부산대 교수)

- 제4주제：개항이후 부산과 일본
 - 발 표 자：강 대 민 (경성대 교수)
 - 약정토론자：홍 순 권 (동아대 교수)

사회자 : 그럼 지금부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를 발표해 주실분은 지난 날 동아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셨던 정중환교수님께서 “古代~高麗末의 倭寇에 對한 一考察”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중환 : 정중환입니다. - 제1주제 발표 -

(주제 발표 내용은 본문 pp. 3 ~ 44 수록)

사회자 : 정교수님께서 대단히 연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오랫동안 열강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주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김광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철 : 김광철입니다. 오늘 첫주제를 발표하여 주신 정박사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오셨기 때문에 고대에서 고려말까지 왜구 문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첫번째 주제가 오늘의 대주제인 “부산의 임진항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부산의 임진항쟁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배경 또 임진왜란과 이전의 왜구의 차별성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발표요지에 나타난 고대에서 고려말까지 왜구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회변화 내지는 발전 특히 일본 사회의 변화와 관련시켜서 왜구 문제를 이해해야된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보았고, 이 문제를 일본 내부의 문제와 관련시킨다고 할 때 발표하신 내용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일적 의지에 의해서 일본이 침탈 행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세력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침탈행위, 약탈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이글 전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고려말까지 왜구의 성격을 4세기 이전과 4세기 이후 그리고 고려말의 3시기로 나누고, 4세기 이전의 왜구 문제는 당시 일본을 부족연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연맹사회가 한군현(漢郡縣)의 통제하에 있다가 한군현이 쇠퇴

하는 과정속에서 혼란기를 맞아 그것이 밖으로 분출된 것이 왜구의 침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신것 같고, 이 이후의 왜구문제는 선생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시피 4세기 말에서 5세기초 고대국가 건설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혼란현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세력들이 침탈행위를 우리나라에 감행해 온 집단을 왜구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말에도 일본의 내정에서 불때 겸창막부(鎌倉幕府)에서 실정막부(室町幕府)로 막부체제가 전환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실정막부의 전개와 함께 일본이 남북조쟁란기에 들어가는데 그 쟁란기에 접어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지방의 일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침탈해 들어온 것을 고려말의 왜구 문제로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이해 방식은 일인학자(日人學者)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문제라든가, 왜구의 활동을 그들이 “해외정복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들을 일정하게 비판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하나의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또 임진왜란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해서 그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고견도 들을 겸해서 한두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제 토론을 마칠것습니다.

선생님께서 왜구 문제를 일본 부족연맹사회의 동요, 고대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혼란, 새질서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혼란 등으로 표현하셨는데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없어신지?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까지에 걸친 왜구 문제를 물자의 약탈, 우리 문명의 수용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국제질서를 고려해 불때 고구려와 신라가 연대를 이루고 있고, 백제와 가야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구려-신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백제가 왜를 오히려 자체 방어를 위해서 끌어들이 측면이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되고 있

습니다. 이런점에서 왜구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가야와의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점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말 일본에서는 남북조쟁란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시기 고려에서는 왜구 대책으로서 여러가지 회유책, 토벌책이 진행되고 외교 사절을 보낸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민왕대는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 김일(金逸)이나 만호(萬戶) 김용(金龍)과 같은 사절을 보내어 실정막부의 장군을 만나고 왜구의 침략을 근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유명하게는 우왕대에 정몽주가 사절로 들어가서 구주 지방의 총독에 해당하는 탐조 원요준을 만나서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여말에 창궐하는 왜구가 전혀 중앙의 통제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중앙 통제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환 : 여말에 고려에서 왜구를 통제해 달라는 사절이 일본에 간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의 막부정부는 그 주모자는 유배를 보내거나 참(斬)하는등 통치자선에서는 일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으나 변방, 특히 대마도나 구주 등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왜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에 고려정부가 주체적으로 격퇴하지 못한 것에도 왜구가 창궐하는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제 1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으로 제2주제는 부산대학교 김석희 교수님께서 “부산의 임진항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석희 : 김석희입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전에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요지문에서 기본 사료 중 일부 출처가 빠진 부분은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충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사(釜山史)에 관심을 가지고 임진왜란 관계 자료가 집대성 된 것을 고찰해 보면 미흡하긴 하지만 “충렬사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전투 상황에 대하여서는 소상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1군인 소서행장군(小西行長軍)에 종군했던 승려, 군사 등이 쓴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침입부터 임란이 끝날때까지의 7년간 부산 지역에 주둔했던 왜군 관계 기록은 우리측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 측에는 일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사 중 임진왜란 관계사는 이러한 기본자료들에 대한 구명(究明)을 통하여 재조명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2주제 발표(주제발표내용은 본문 pp. 45~76 수록)—

특히 임진란 당시 부산 지역의 공신을 본문의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공신으로 올려진 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록하였습니다. 하지만 60여명의 명단을 모두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김석희 교수님께서 “부산의 임진항쟁”에 대하여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자세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하여 동아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정재훈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 정재훈입니다.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근래까지 계속된 부산일보의 “임란 400돌 그 역사의 거울”이라는 글에서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정치상황이라든가 동북아시아의 정세 등에 대하여 신문지상을 통하여 임진왜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현황과 과제를 재정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통하여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신 “부산의 임진항쟁”은 임진왜란 초기 우리 부산과 직접 관련된 전투를 통하여 임진왜란에 대해 우리지역의 선조들이 어떻게 항전했는가를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저의 토론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임진왜란은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어느 다른지역보다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왜군이 제일 먼저 주력군 제1군을 투입한 것은 부산이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상 요충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부산을 제압해야만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은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치열했던 초기 임진항쟁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과 임진왜란과의 상관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이 끝나는 7년간 우리 부산은 일본군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한 즉 점령치하의 7년간 부산지역 항쟁상과 사회상을 밝힐때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부산의 임진항쟁사가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의 발표중에도 일부 언급되었습시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희 : 왜군의 치하에 있던 곳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시다. 더구나 부산은 7년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가 거의 없습시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부산시사(釜山市史)를 쓰면서 일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조 25년 소서행장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모리테리모도 장군이 왔습시다. 그때 부산에 주둔했던 병력의 수는 나오지 않습시다.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발표한 '조선의 역'(朝鮮の役)이라는 임란관계자료집에도 주목되는 내용은 없습시다만 임란 25년 7월이라 하여 매년 어느때에는 얼마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일본이 우리나라와 처해 있던 위치와도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체로 적을 때는 5천명 많을때는 2만명까지 부산지역에 왜군이 주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왜군과의 항전에서 살아 남았던 사람은 아주 적었으며 임란이후 부임한 동래부사 이안눌의 시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그 수는 천백의 일이 살아 남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래지역민은 대대로 물려오던 농토를 버리지 못하고 거처한 부류와 또 일부 사람은 이사도 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동래지방의 사료가 아닌 그 당시 우리

나라 다른 지방의 사료에서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의병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잔류하고 있던 동래 혹은 부산, 수영에 있던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은 이순신장군의 ‘부산해전보고’의 기록에 일부 보입니다. 우리 수군이 부산항으로 진출하여 정박해 있던 일본 배를 격파하였습니다. 이때 도망하여 육지로 올라온 일본 수군과 아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적군 중에는 우리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등의 기록을 볼때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본군에 부역(負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시 부산지역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수영의용단’ 비문에 보면 이 시기에 일본인의 옷을 입고 일본인의 풍습을 따르고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도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초기에 일본군이 부산지역을 점령하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으로 포고문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일부 보면 “우리는(일본인) 너희들(조선인)의 정부가 괴롭힌 만큼 괴롭히지 않는다. 너희들(조선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협조하라” 등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유적인 내용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군이 조선의 민중들에게 해를 가할 때는 즉시 일본군의 관에 보고하라는 말도 합니다만, 일본군의 만행은 달을 거듭할수록 심해져 갑니다. 일본군은 임진란 후기에 접어들면서 식량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만행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동래지역민에게 전세(田稅)와 요역(搖役)을 가합니다. 이러한 실례는 부산 자성대 축성의 설계 감독자를 일본에서 데려오고 축성을 담당한 사람들은 부산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산좌천동 북쪽에 있던 왜성(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즉 부산진 본성은 우리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동래의 왜성지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충렬사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언덕 위에도 왜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의 영도, 용미산(지금의 시청자리 부근) 등에도 왜군의 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임진왜란시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점령지에서 지역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당시 사회상을 구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자 : 김석희, 정재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2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제3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휴 식 —

사회자 : 주제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주제인 “임진왜란 후의 부산과 일본”을 발표해 주실 분은 전북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하우봉 교수님이십니다.

하우봉 : 하우봉입니다. 제3주제 발표(주제발표내용은 본문 pp. 77~ 133 수록)

사회자 : 하우봉 교수님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가 다시 열리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부산왜관이 폐쇄 될 때까지의 일본과 부산과의 관계를 외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문화교류의 측면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김동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철 : 김동철입니다.

하우봉선생님께서 조선통신사의 명칭이 잘못되고 일본통신사로 고쳐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전까지 한일관계 연구가 일본인들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한일관계사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한일관계사 연구가 나가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일선관계사의 연구(日鮮關係史の 研究)’라는 3권의 방대한 저서와 그 이후에 최근 1980년대에 특히 무역사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의 ‘근세일조 통교무역사 연구(近世日朝 通交貿易史 研究)’나 오사 세쓰코(長節子)의 ‘중세 조일관계와 대마(中世 朝日關係と 対馬)’라고 하는 연구와 함께 80, 90년대에 들어와서 ‘아세아속의 일본사’라는 시각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측의 연구는 대개 60년대의 고 이현종선생님의 ‘조선전기 대일교섭사 연구’나 또는 김병하선생님의 ‘이조전기 대일무역 연구’ 이것도 모두 60년대의 연구이고 대부분 조선전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경성대학교 박수이교수님의 ‘조선후기 무역사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늘 발표를 하신 하우봉선생님의 ‘조기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라고 하는 저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선생님은 최근 조선 후기 한일 관계사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발표 내용에 대해선 겸손의 말씀으로 ‘알고 개괄적인 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 짧은 요약문 속에서 조선 후기 한일관계사에 대해 상당히 의욕적인 새로운 연구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임란 이후의 대일관계를 정치적인 교류와 사절 왕래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성격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607년에서 1811년까지의 12차례의 통신사행을 기존의 연구사와는 달리 1636이후 9차의 사행을 통신사행으로 보고 그 이전의 3차는 회담겸쇄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기존의 연구사와는 달리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중에서도 2단계에서의 통신사, 문위행·차왜의 2원적 교류에서부터 문위행·차왜의 실무위주의 일원적 교류로 변모해 간다는 새로운 해석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발표에 입각해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의 발표에서 12차례의 사행 중에서 전3차의 통신사행은 통신사행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해서 기존의 통신사 연구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이고 계신데 기존의 연구가 현재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연구와 선생님의 연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대일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1811년의 “역지빙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지빙례”가 19세기초라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통신사행이 없어지고 문위행·차왜 중심의 실무외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러한 “역지빙례”가 한일 외교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통신사행이 폐지된데 대한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왜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2차 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두도포 왜관에서 마지막 초량왜관으로 옮겨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우봉 : 통신사 연구 현황을 지금 짧은 시간내에 개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대체로 통신사를 포함해 조일관계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는 일본의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씨가 대표적이고 통신사 자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교수가 각 사행마다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근세일조관계사의 연구”라는 대저서를 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통신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통신사 외교에 대한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양국간의 관계사란 것이 아전인수격이 되기 쉽고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료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인접한 나라에서는 인식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사료를 모두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씨의 연구가 가장 수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역시 일본의 내정·정치 체제 변화를 기준으로 통신사에 대한 시대 구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통신사에 대한 개념 정리나 시대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니다. 그렇게 볼 때 조선후기에 있어서 초기의 회답겸쇄환사,(그 이전에 탐적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본은 처음부터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의 명칭을 두고 조정에서 많은 숙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유사(通諭使)로 하면 어떻겠느냐, 통신사로 해주자 등의 논란 끝에 회답겸쇄환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회답겸쇄환사로 구분해서 보자라고 한 것은 비록 그것이 통신사와 규모나 방식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파견 목적이 그 이후의 통신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조선후기의 조일외교 체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국교 재개 자체는 1607 사절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17세기 초반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일외교체제가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대륙의 형세가 안정되고, 일본에서도 덕천막부체제가 안정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청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외교 자체도 확립되게 되는데 대체로 그 시기는 1635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통신사’가 정식으로 파견된 시기이고 겸대제·차왜·문위행의 시행 등 굉장히 많은 변화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전기 조일관계에 있어서도 국교가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은 1403년에 사절을 파견하는데서 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확립 되는 것은 그보다 40년후인 세종때에 계해약조가 체결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조선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635~6년 어간을 외교체제가 확립되는 시점으로 볼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파견되는 사절을 비록 형태면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면에서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 또 당시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그 명칭문제로 상당한 숙의가 있었던 끝에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그런면에서 시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811년 역지병례 이후의 구분은 형태적으로도 뚜렷한 것이니까 명확하면서도 편의적인 시대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역지빙례의 원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 사행은 에도(江戸: 지금의 동경)까지 갔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대마도에서 사행을 맞게 되었는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사 외교를 요청하는 측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측의 사정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왜 역지빙례를 원하고 약 20년간의 치열한 교섭 끝에 대마도로 옮겨서 하게 되었느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표방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한번 접대하는 데서 막부 뿐만 아니라 그 연도에 있는 서국(西國)지방의 제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번(藩)의 재정이 휘청할 정도의 부담이었습니다. 대체로 통계를 보게 되면 통신사 1회의 접대비용이 銀 약 100만 양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18세기 중엽 이후에 덕천막부(德川幕府)의 재정에 적자가 가중하게 되고 또 그 시기에 향보, 천명, 천보(享保, 天明, 天保) 연간의 기근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 통신사 접대 비용을 축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그 이전에 있어서도 이미 아라이하쿠세끼(新正白石)의 대판(大阪) 역지빙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 재정 절감이 기본 원인이 되었고, 두번째는 정치적 필요성인데 요컨대 통신사가 줄 수 있는 정치적 의미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덕천막부 체제가 안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후(諸侯)들에 대한 막부장군의 권위를 세우는데는 조선에서 통신사가 와서 신장군의 습직을 축하해 주는 것이 일본 국내 정치적 의미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1682년 중국에서 오삼계(吳三桂)의 난이 진정되면서 중국 대륙이 완전히 청(淸)으로 안정되면서 통신사가 가지는 일본 국내적 의미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통신사행이 문화사절의 성격을 띠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일본내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퇴색한 통신사에 대하여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8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양선박들이 자주 내왕하게 됩니다.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

하면서 일본은 외교의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교 교섭에 있어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상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의 국학(國學)의 발전에 의해 “日本書紀”적인 인식과 사관이 부활하게 되고 대조선 우월의식이 고조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도 통신사 의미의 축소에 대한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1811년의 역지방례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장 강하게 내세웠던 나카이 치쿠잔(中井竹山)의 저서인 ‘초모위언(草茅危言)’의 내용이 그 당시 역지방례를 실지로 주도하였던 노중(老中) 마츠다이라 시다노부(松平定信)에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상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조선측으로 보게 되면 통신사행 파견을 달가와서 한 것이 아니고 임란 이후 일본의 무력적 위협에 대한 평화적 위무책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적극적인 통신사 요청이 없자 조선에서도 굳이 파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통신사행 파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예단을 보내는 인삼의 조달등이 힘들었습니다.

한편, 19세기 전반기의 조선을 흔히 보수반동의 6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당시는 굉장히 체제모순이 심화되고 봉건체제가 붕괴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고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처 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일외교의 분위기는 조선전기에는 조선이 우위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의 외이기미책(外夷羈糜策)으로 대일외교를 펼쳐 나갔으나, 조선후기에는 명분은 조선전기와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 후 일본의 무위(武威)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의 정세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조선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속에서 대일교섭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세번째로, 초랑왜관으로의 이전 원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선 구체적인 요인으로서 두모포왜관의 시설과 선착장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1640년대부터 왜관무역이 점차 활성화되고 차왜의 내항 등으로 왜인들의 출입이 늘어나자 현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도측의 집요한 왜관이전 요구가 있었고 막부측도 직접 조정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의 평화적 대일정책과 대마옹호책이라는 원칙에서 결국 이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戰勝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일본형화이의식(日本型華夷意識)’의 기저에는 무위(武威)가 있었다고 일본학계에 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임진왜란은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조선으로서는 정묘·병자호란을 당하는 실로 어려운 상황속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일정책은 대체로 대중국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거나 종속변수화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다소 막연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의 평화유지라는 것이 절대적 과제일 수 밖에 없었고, 왜관이전 요구의 수락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하우봉, 김동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성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강대민 교수님의 제4주제인 “개항이후 부산과 일본”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강대민 : 강대민입니다. 제4주제 발표(주제발표내용은 본문 pp.135~154 수록)

사회자 : 방금 강대민 교수께서 개항이후 부산과 일본의 관계를 부산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조계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홍순권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홍순권 : 홍순권입니다. 방금 강대민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만 발표하신 내용이 대체로 평이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논지라던가 의의를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논지에 대

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다만 논지를 좀 보충하고 또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부산 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 본다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에 있는 전반적인 논지는 부산의 개항과 그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인 침투 과정에서 부산이 식민지적인 성격을 띠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개항이라는 것은 물론 논문 자체는 부산과 일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개항이라는 것은 한국사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의 일대 전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산이 그 이전에 국내에서 차지하던 지위가 개항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항이 개항 됨으로써 국내의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항기 이후 부산 상권의 변화와 지위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이 논문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부산에 설치된 일본의 전관거류지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거의 국내적·국제적인 방해나 제약없이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기존에 왜관이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하는 등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국내·국제적인 정세와 관련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개항 이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경제침투, 경제기구 설립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일본인들의 경제침투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없을까 즉 당시 일본인들이 개항 이후에 토지를 매점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주체들이 일본인 내에서 주로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점들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부산지방민의 항일투쟁에 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시다마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졌던 특수성과 관련해서 항일투쟁이 개항 이후 일제시대를 거처가면서 다른 지역의 항일투쟁과 차별성, 특수성 같은 것은 없었겠는가. 도시라는 성격 때문에 또 개항장이라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례만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언급이 미약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민 : 홍순권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질문하신 홍순권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를 하시고, 한말의 의병관계라던가 객주 관계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본 주제발표를 홍교수님께서 하셨더라면 더 좋은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연구 영역에서 좀 벗어나지만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산은 역사적으로 변방지역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산은 동래에 소속된 곳으로 사족(士族) 계급도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고 과거에 합격자도 극히 없습니다. 부산지방이나 동래지방을 보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왜관이 설치되면서부터 국가적 관심이 가져지고 개항이 되면서 일본이 침략의 교두보로서 관심을 모은 곳입니다. 그리고 개항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부산항이 하게 되고 일본은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국내시설물이라던가 자기들이 쓰는 침략적인 모든 도구들을 항상 부산항을 통하여 구축해 갔습니다. 따라서 부산항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세계 열강들은 일본이 이긴 이후에 세계 열강들은 일본이 부산항을 거점으로 해서 결국 대륙 침략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무역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독점했던 곳이 부산항이었으니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전관거류지를 다른 나라의 저항없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1878년도에 일본이 전관거류지를

가지고 난 이후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1880년대 조·영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열강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부의 의향은 부산에 설치한 일본의 전관거류지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와 공동조계지로 설치함으로써 일본의 조계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워낙 일본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능 했습니다. 다른 열강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하면 영국·프랑스·미국·독일 같은 나라들은 부산에 만약 조계지를 설정한다하더라도 통상의 목적으로 해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전관거류지를 설정한다면 자국민들이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희망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열강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일본이 계속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러시아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때부터 부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부산에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차지 설정에 주력하여 부산 절영도에 석탄저탄고를 설치할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랬을때 자기들은 일본이 4,900명 정도를 가져 갔으니까 그 右 편의 약 9만명 정도의 땅을 가져가서 일본도 견제하고 동남아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해보고자 했는데 이 의도가 드러나니까 제일 먼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력이 영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동남아의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만약 영도에 군사적인 목적의 조차지를 러시아가 가진다면 대단히 영국으로서는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결국 영도에 러시아가 조차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아울러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활발히 이권 반대를 전개했기 때문에 독립협회의 강력한 반대운동도 러시아가 영도에 조차지 설치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열강들이 부산 영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조계지를 설정해서 강제라도 자국 상인들을 이주시켜 주둔시켜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조계지 설정을 확립합니

다만 그 당시 부산의 영도는 일본인 개인들에 의해서 거의 다 점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가가 다시 돈으로 매입해서 열강의 조계지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여력이 안되고 교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호지부지 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열강들은 초기에는 조계지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조계지 확대를 성취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항일관계에 대해서 다른지역과의 관계·특성 등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산항의 저항관계를 제가 몇가지 사례를 나열했습니다만 김석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보면 임진왜란시는 수영성에서의 강력한 조직적인 저항 동래의 병장들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개항 이후의 사건을 보며는 일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저항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동학 농민혁명운동도 그 당시 김해에도 일어나고 진주 등 부산 주변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말의 의병운동을 보며는 부산의 변두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부산민들은 조직적인 저항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이 안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사료를 본건 아니고 추측인데 개항이후 부산의 전체 성격이 바뀝니다. 부산의 구성 성격을 보며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부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항장이 되고난 이후부터 부산에 많은 상업 활동이 전개되면서 각지의 재주들이 모이게 됩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부류가 따로 생기고, 그 다음 일본 전관거류지가 생기다보니 거류지에서 먹고 사는 계층이 또 생기고 수공업자가 약간 있었다고 얘기 했습니다만 일본의 기계공업제품 때문에 부산 공업이 침체됩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은 자기독점자본을 일으켜 강대한 자본을 가지고 부산에 들어온게 아니고, 초기부터 부산에 들어와서 자본을 약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소규모 공장을 일으켜 주로 가내공업 위주 소모품, 식료품 위주 공업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공업인들이 그 사

랍들로 인해서 결국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다보니까 어떤 응집력을 가지고 어떤 자기계층의 이익이 위반되었을때 응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체를 형성하기에는 약한게 아닌가.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 그런 의식이 나중에 고조되다 보니까 일제지배때 가면 그 힘이 뭉쳐서 부산 최초의 부두노동자 노동투쟁이 일어난 배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군수물자라던가 부산 거류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이 거류민을 지켜야하고 물자 수송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산은 일본 군함이 수시로 무력(전함) 시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일개 중대 병력이 항상 주둔하면서 병참사령부를 두었고, 또 나중에는 일본이 설치한 모든 전선시설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일개 대대병력을 따로 파견하여 헌병대를 둡니다. 이와같이 부산지방에 일본의 세력이 워낙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그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사회자 : 강교수님, 홍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발표와 토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부산포송전 4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